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6호 [루게 제23238호] 주체99(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는 영광을 지닌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도착하시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

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 <총폭탄!>, <결사옹위!>라는 우렁찬 구호의 함성이 10월의 하늘가로 뒤흔들려 퍼져나갔다. 격정의 환호를 리치는 전체 참가자들은 반세기째 이르는 장구한 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로선과 군사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총대를 확고히 틀어쥔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무력부장인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동지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도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역사적인 열병식에 참가하여 당과 수령의 영원불멸할 령군업적을 빛내이고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불패의 위용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열병부대의 지휘관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병식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이 당의 군사로선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사수하는데 적극이바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자기들을 만나시여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영원히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 편방비서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 편방비서가

12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오스트리아로조련병 좌익빨럭 편방비서가 축하편지를 올리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필승의 담보

라오스, 라이신문들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라오스, 라이신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마이》 1일 부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옳은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고 인민들을 현명하게 이끌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데 대하여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사회주의를 지켜냈을뿐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수령의 탄생

100년이 되는 2012년에 기여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이 이미 강성대국의 지위에 오른 조건에서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의 경제강국건설에서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걸은 65성상면은 조선인민을 이끌어 세계적인력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이 나라 신문 《바테라오》 5일부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라이신문 《성삼일보》 1일 부는 《사회주의위업의 향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수령에 의하여 창건된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는 로속하고 세련된 당으로,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세월 착취와 압박, 빈궁과 무권리에 시달리던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였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었다. 조선인민은 실제함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을 따르는 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으며 당의 령도야말로 사회주의위업의 필승의 담보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조선로동당 창건 65돐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